

제천에 가면 철수가 있다

김 인 현 | 르포라이터



이철수씨의 작업실에는 하루에도 서너명씩의 방문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그의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예술가들이 하나 둘 서울을 떠나면서 지방 곳곳은 나뭇대로의 예술인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친구 따라 내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멀지 않으면서 건물 임대료는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시골을 찾게 되고, 그러다보니 놀러왔게 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정착에는 폐교도 단단히 한몫했으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한 지역민들의 영향도 있었다.

이철수씨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 2구. 박달재가 뻗어 보이는 동네에 이철수씨가 산다. 1987년 정착했으니 제천사람이 된 지도 14년째다. 그러다보니 박달재 부근에 가서 ‘판화하는 사람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누구나 잘 보이지도 않는 그의 집을 잘도 가르쳐 준다.

자신의 작품이 ‘오래동안 두고두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는 사람과 닮았으면’ 하는게 그의 소망이다.

이철수씨는 이곳에서 예술가의 길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맘흘려 농사를 짓는 수고도 아끼지 않으며, 크고 작은 마을 일에도 착실히 참석하는 열정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가 이곳에서 벌이는 일들 중 주목받는 것은 제천 사람들과 함께 꾸리는 환경축제와 의병제이다. 매년 5월과 10월에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소외되어 있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박해 보이기만 하는 이 일이 힘을 잃어가던 농촌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환경운동연합 제천지부를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제천은 말 그대로 나약한 농촌 마을이었다.

“젊은이들은 의기소침해 있었고, 나이 든 사람들은 포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문화를 메말라가게 만들고 있었고, 그것이 더욱 힘을 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때 발견한 것이 의병이었습니다.”

마침 제천지역에는 의병과 관련한 사료들이 많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의병제를 열었으며, 환경운동과 농촌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도 힘썼다.

하지만 이철수씨의 본업은 예술가다. 벌써부터 내년 달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의 작업실에는 하루에도 서너명씩의 방문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그의 작업실과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자들은 이미 작업을 마친 판화들을 만져보고, 때로는 몇몇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의 삶에 동화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주 ‘목판을 새기는 일과 밭을 가는 일이 많이 닮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작품이 ‘오래동안 두고두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는 사람과 닮았으면 한다.’는 소망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럴까? 요즘 들어 그의 작품을 찾는 사람들의 손길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철수씨가 판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민중판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그의 작품이 시위가



이철수, 그는 목판을 새기는 일과 밭을 가는 일이 많이 닮았다고 말한다



기승을 부리던 대학가 외벽에 하나 둘 걸게 그림의 형태로 실리면서 그 명성을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후 「태백산맥」의 표지화, 법정 스님의 저서 「산에는 꽃이 피네」의 표지화 등으로 대중들 가까이 다가간 후, 최근 문학동네와 손을 잡은 후, 급속도로 빠르게 일반인들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평동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의 일과는 주로 농사와 판화 작업이지만, 그는 스스로의 작업을 또 다른 경작활동이라고 말한다.

270평으로 시작한 그의 농토는 3천평 가까이 되었으며, 서울 토박이였던 그의 입성은 시골사람 그대로다. 그곳에서 그는 벼농사와, 고추와 배추 등을 심는 밭농사를 겸하고 있다.

시와 그림이 적절히 조화된 그의 작품을 두고 일부에서는 현대적 문인화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선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웬지 모를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면서도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의 작품이 주목받는 것은 작품에 대한 그의 결벽성 때문이다. 그는 한 작품당 30점 이상은 절대 찍어내질 않는다. 원하는 수량이 나오면 목판 자체를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량이 나온다면 모두 가짜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제 작품은 모두 제 일상을 통해 손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하고, 쉬고, 오는 사람을 맞고, 가는 사람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영감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남은 것입니다. 마음 속의 분노에도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고, 사랑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소재가 아내였음도 부인하지 않았다.



박하사탕 촬영지도, 왕건 세트도, 청풍문화재 단지도 둘러 볼만하다

그의 작업실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오가다 들른 사람, 미리 걱정하고 찾아간 사람. 그럴 때마다 이철수씨는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반긴다. 말이 없어도 흐뭇한 서로의 미소가 대화를 대신할 듯한 그의 작업실은 작업을 마친 판화와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깔끔한 목판들, 그리고 이제 막 작업을 마친 작품들로 가득하다.

결코 수려하진 않지만, 할말은 하는 그의 목소리는 손님의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는 법이 없다. 판화가 사람들에게 내던지는 선문답처럼, 때로는 묻고, 때로는 답하면서 그와 시간을 보내다보면 서너시간은 훌쩍 가버리기 마련이다. 오래 시간을 빼앗은 듯 해 가겠다고 문을 나서면 판화 찍는 법도 보고 가라며 다시 손목을 잡는 그의 호의는 늘 온화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복작거리지만 않는다면, 조용하고 조근조근한 그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날 우연히 그곳으로 가서 판화가의 삶과 예술을, 그리고 그가 사는 집과 논밭을 둘러봐도 좋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박하사탕 촬영지도, 왕건 세트도, 그리고 청풍문화재 단지도 둘러보길 권한다.

왕건 세트는 여러 곳에 나뉘어 있는데, 제천에 지어진 것이 가장 최근 것이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청풍문화재 단지내에 있는 이 세트는 최근 150만명이 다녀가 그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총 7천여평 규모에 지어진 이 세트는 고려초기 예성강 일대를 무대화한 것으로 해상전투 장면이 주로 촬영된다.

이미 철도청을 통해 간이역사 건립이 이야기되고 있는 박하사탕 촬영지는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로 충북선 진소천 구간이다. 박하사탕 주인공 영호가 열차에 치여 자살하는 장면으로 유명해진 이 철교에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거릴 만큼 인기를 누리는 관광명소가 된지 오래다.

